

| 정책포럼 2025-01호 |

JEJU PEACE INSTITUT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과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박영준(국방대학교)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1. 문제의 제기

- 전쟁은 자국의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국가에 대하여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국의 목표와 의사를 강압하는 정치외교의 최종적인 방식임.
-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3년을 경과하고 있음. 러시아는 자신의 목표와 국가이익을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 NPT 조약에 의해 핵보유가 인정된 핵강국인 러시아가 ‘특수 작전’의 명목 하에 상대적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쟁을 도발한 것은 국가간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UN헌장을 포함한 국제규범 면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임.
- 다만, 국제적 위상이나 군사력 면에서 절대적 약세로 평가되었던 비핵국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3년 이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 등에서 다각적으로 평가될 가치가 있음.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수행하고 NATO 전반적인 방위체제를 재정립하면서 국제안보질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가 전쟁 수행 중에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재배치하고 미국과 체결한 New START 조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탈냉전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구축해 온 국제핵질서가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전쟁 과정 중에 러시아와 북한이 2024년 6월,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동년 하반기부터 쿠르스크 등의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점은, 한반도의 안보 및 미래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드론 등의 무기체계나 기갑 및 참호전 전술과 관련해 전쟁 연구 및 전략연구자들 사이에서 미래전쟁 관련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쟁의 종전방식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전개되는 와중에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신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쟁 종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전개된 이 전쟁의 경과와 군사적, 국제정치적 영향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미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됨.

2. 전쟁의 주요 경과

1. 전쟁의 초기 경과

■ 러시아의 개전 동기 및 초기 공세:

-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21년 7월 발표한 논문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 and Ukraine” 등을 볼 때, 그는 탈냉전기 이후 NATO의 동진을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인식 속에 냉전 시기 소연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임.¹⁾
- ◆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승인하고,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러시아군을 진주시킨다고 밝혔고, NATO의 동부유럽 병력 배치를 제한할 것에 합의한 1997년 NATO와의 조약에 근거해 NATO의 동방 확대를 정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함.²⁾
-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방지하고 친러시아로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후속하여 우크라이나의 남부 및 동부를 점령하고, 수도 키이우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임.
- ◆ 이 같은 정치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2월, T-72 탱크를 앞세워 러시아 지상 병력 15만 내외를 우크라이나 북부, 남부, 동부 등 3개 방면에 배치하고, 흑해 지역에 잠수함과 칼리버 순항 미사일 탑재한 군함 전력을, 국경지대와 벨라루스 지역에 Su-35 전투기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여 공격 태세를 갖추.³⁾
-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 의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고, 수도 키이우 방면에 75기의 폭격기 및 100여 발의 미사일로 공중 공격을 감행, 동시에 동부 지역 도네츠크, 남부 크림반도 및 마리우폴 방면에 대해서도 동시 다발적 공격을 감행함.
- ◆ 2022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실시된 초기 공세 과정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차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고, 동부에서도 전선을 돌파하는 부분적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전투기 도합 300대를 동원하고서도 제공권 장악에 결국 실패하면서 수도 키이우 방면에 대한 공세는 단념할 수 밖에 없었음.⁴⁾

1) Roger Cohen, “Driven by enduring Strength of Soviet Myth,” *The New York Times*, March 28, 2022, 에서 재인용.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전략가들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해서는 박영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의 영향: 제2차 냉전시대의 서막,” 『원광 군사논단』 제17호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22년 12월) 참고.

2) 『朝日新聞』 2022년 2월 23일 기사에서 인용.

3) 전쟁 직전 러시아군 전력배치 태세는 Anton Troianovski, Michael Schwartz and Andrew E.Kramer, “Putin wields an Updated and Lethal military,” *The New York Times*, January 28, 2022, 참조.

[그림 1] 러시아 초기 공세, 2022년 2월 - 2022년 3월(출처: The Economist)



4) 개존 초기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 실패에 대해서는 영국의 왕립군사연구소(RUSI) 저스틴 브롱크(Justin Bronk),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방어센터장 톰 카라코(Tom Karako)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Constant Meheut, "Taking Risks, Russia intensifies its Air Attacks in Ukraine," *The New York Times*, March 7, 2024.

■ 우크라이나의 초기 방어와 NATO 등 국제사회 군사 지원:

- ◆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군사력은 러시아의 그것에 비해 수적 열세였음.

[표 1]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요 전력 비교⁵⁾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역 병력	19만 6천 명	90만 명
예비병력	90만	200만
전투기	98기(Su-24, Su-27 등)	1,511기
공격헬기	34기	544기
전차	2,596대	1만 2420대
장갑차	1만 2303대	3만 122대
국방예산	43억 달러	458억 달러

- ◆ 다만, 미국을 위시한 NATO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의향을 다각도로 표명하였음.
 - ▶ 2014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재블린,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지원
 - ▶ 2021년 12월, 마이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러시아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경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할 것 표명
 - ▶ 2021년 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요원을 파견하여 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Hunt Forward 작전을 실시⁶⁾
-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 공세가 개시되기 직전, 미국과 영국이 사이버 정보전의 성과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통신 인프라를 방어함.
 - ▶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4,700여 개의 위성으로 구축한 스타링크 시스템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 및 정보통신체제 유지를 지원
- ◆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의 방공체제 S-300 미사일 방어체제가 파괴되었으나, 슬로바키아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를 제공받는 대신 자국 보유 S-300 방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방공체제를 보강함.⁷⁾
-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 방면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기갑부대 공격에도 불구하고, 직접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수도에 대한 사수 의지를 국민들에게 결연하게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함.

5) 『朝日新聞』 2022년 2월 27일 기사에서 재인용.

6) 『朝日新聞』 2022년 11월 20일 기사 참조.

7) Andrew Higgins, "A Cargo to fight for Ukraine's Sky," *The New York Times*, April 16, 2022. 슬로바키아의 S-300 체제는 1980년대 당시 소련에 의해 제공된 것이었다고 함.

-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경쟁하던 포르센코 전 대통령과 전 시 협력을 약속하고, 군 사령관 자루지니 장군과는 매일 전화 회담을 가지면서 전쟁 수행을 독려
 - ▶ 또한 6개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합하여 단일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하여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동시에 NATO 등 국제사회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요청⁸⁾
 - ◆ UN과 NATO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모색함.
 - ▶ 2022년 3월 2일 개최된 UN총회는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1개국 지지로 가결⁹⁾
 - ◆ 전쟁 발발 직후부터 NATO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개시. 미국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스팅어 미사일, 에스토니아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체코는 기관총과 소총, 탄약 등, 네덜란드는 방공 로켓 발사대 등을 지원.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 등도 대전차무기와 소총 등 군사지원 실시함.¹⁰⁾
 - ▶ 러시아에 면한 발틱 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카자 칼라스(Kaja Kallas) 수상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도록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지원 여론을 주도¹¹⁾
- 개전 초기 러시아의 고전 및 우크라이나의 방어 성공 요인:
- ◆ 개전 초기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했지만, 수도 키이우 방면에 대한 공세가 저지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 ◆ 그 이유는, 러시아군이 사이버전, 미사일, 전투기 등 전력 면에서 우세했지만, 항공부대와 지상부대간 협조가 부족하여 우세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임.
 - ▶ 더욱이 전쟁 지휘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푸틴 대통령,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주도하면서, 현장 군지휘관의 재량권이 극히 제약되는 지휘구조를 노정¹²⁾

8)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지도에 관해서는 Andrew E.Kramer, “Unified against a Common Enemy,” *The New York Times*, April 26, 2022 참조.

9) 『朝日新聞』 2022년 3월 4일 기사. 이 결의안 반대국가들은 러시아, 벨라루시, 북한, 에르토리아, 시리아 등 5개국이었다.

10) Steven Erlanger, “Europe stands up to Threat from East,” *The New York Times*, March 4, 2022.

11) Kaja Kallas, “At NATO, let’s keep the Focus Simple,” *The New York Times*, March 25, 2022.

12) Helene Cooper and Eric Schmitt, “For Russia, Command is Work done Remotely,” *The New York Times*, April 2, 2022.

- ◆ 한편,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 공세를 미국의 지원 하에 방어하고, 스타링크 시스템의 지원 아래 지휘통신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
- ◆ 이를 바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리더십 하에 미국과 NATO 국가들로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으로 러시아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하고, 대공 미사일 스타어와 S-300 미사일 방어체제 등으로 러시아 공군기들의 제공권 장악을 저지하는데 성과를 거둠.¹³⁾

2. 전쟁의 진지전 및 소모전 양상(2022년 4월 - 2023년 6월)

■ 동부전선 방면 러시아의 공세와 진지전 양상:

- ◆ 러시아는 2022년 4월 초부터 수도 키이우 방면에 대한 공세를 중지하고, 대신 동부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방면, 남동부 마리우폴, 북부 카르키프 방면에 공세를 집중하기 시작함.
- ◆ 이 같은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4월에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야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현장 지휘 태세를 강화. 또한 4월 초 추가 병력 13만 4천여명을 소집하고, 사설 군사단체 바그너 그룹 등에서 용병을 모집.¹⁴⁾ 2022년 9월에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초로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규모의 동원령을 발표함.
- ◆ 주된 공격 방향이 광활한 평야지대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진지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갑부대 및 포병 화력을 우크라이나군 방면에 집중시키고, 정찰드론 Orlan 10 등을 운용하면서 우크라이나 병력 위치를 포병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쟁 수행함.¹⁵⁾
- ◆ 전쟁 양상이 기동전(war of movement)이 아닌 진지전(war of position)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남동부 방면에서 5월까지 마리우폴을 장악하고, 동부 방면에서는 7월 말까지 루한스크 지방을 거의 점령하고, 도네츠크 방면에 압박을 가하는 성과를 거둠. 8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동부 전선 방면을 장악하게 됨.¹⁶⁾
 - ▶ 점령지역에서 러시아는 지방 정부에 친러 인사를 기용하면서, 러시아 통화를 도입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러시아 교재로 교체하고, 러시아 인터넷 서버를 통용시키는 정책을 강행¹⁷⁾

13) 『朝日新聞』 2022년 3월 13일 기사 참조.

14) Cooper and Schmitt, "For Russia, Command is work done Remotely," (2022); Eric Schmitt, Julian E. Barnes and Helene Cooper, "Russia sends Mercenaries to its Battle in Ukraine," *The New York Times*, April 8, 2022; Helene Cooper, "Russian Military Plodding Along," *The New York Times*, June 2, 2022, 등을 참조.

15) Thomas Gibbons-Neff, Natalia Yermak and Tyler Hicks, "War Shifts into a Duel of Drone-led Artillery," *The New York Times*, May 9, 2022.

16) Valerie Hopkins, Neil MacFarquhar, Steven Erlanger and Michael Levenson, "No End in Sight for Ukraine," *The New York Times*, June 6, 2022; Thomas Gibbons-Neff, "A War of Attrition takes a Toll on both Sides," *The New York Times*, July 6, 2022.

- ◆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핵전력 운용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임.
 - ▶ 2022년 10월을 전후하여 러시아 내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탑재한 전술핵을 흑해 상공에서 폭발시키거나,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음. 2023년 3월에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재배치¹⁸⁾
 - ▶ 2023년 2월,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이행정지를 표명하기도 함
- ◆ 또한 러시아는 동부 방면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면서도 드론이나 공군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중 공격을 수시로 감행함. 2023년 5월과 6월에 드론 100여 대를 동원하여 키이우를 공격하였고, Mig-31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음.¹⁹⁾

[그림 2] 2023년 2월 시점의 러-우전쟁 양상²⁰⁾



17) Steven Erlanger, Jane Arraf and Marc Santora, “U.S. Signals growing Resolve against Russia,” *The New York Times*, May 3, 2022.

18) David E. Sanger, Anton Troianovski and Julian E. Barnes, “If Moscow takes Fight Nuclear, what then?” *The New York Times*, October 3, 2022;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There are Risks for Putin if he uses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October 5, 2022.

19) Marc Santora, “The Work doesn’t Stop for Ukraine’s Air Defenses,” *The New York Times*, June 2, 2023.

20) Kate Davidson, “The Russia-Ukraine War Report Card, Feb. 23, 2023,” *Russia Matters*, February 23, 2023, <https://www.russiamatters.org/blog/russia-ukraine-war-report-card-feb-23-2023>.

■ 우크라이나의 방어전과 NATO 국가들의 군사연대 강화:

- ◆ 한편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진지전화, 소모전화 양상에 대응하여 미국 및 NATO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방공망을 강화하고 포병 화력을 증강하고, 드론 등의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됨.
- ◆ 미국은 M-777 야포, 하이마스 로켓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동부 및 남동부 전선에서의 화력 대응 체제를 보강,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면서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2023년 3월, 다시 한국으로부터 추가 12만 발을 요청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탄약 지원.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각각 자국 보유 Zunana 와 Krab 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함.²¹⁾
 - ▶ 미국의 정보 지원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는 지상 발사 넵툰 미사일로 2022년 4월, 흑해 해상 항행 중이던 러시아의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기도 함
- ◆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 터키에서 드론을 구입하고, 개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Switchbalde 드론을 제공받기도 했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자국 제조업 능력을 기반으로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자체 드론 무기 개발에 착수. 우크라이나가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한 Perun 드론은 150미터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됨.
 - ▶ 우크라이나는 다종 드론을 운용하여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할 뿐 아니라, 2023년 5월에는 직접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공중 공격하기도 함
 - ▶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명확해지자 우크라이나의 부수상 겸 디지털 변혁상 페도로프는 미래 전쟁은 최대한의 드론이 운용되고, 인간의 역할은 최소화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maximum drone, minimum human)²²⁾
 - ▶ 우크라이나는 드론 이외에도 드론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지도상에 구현하는 실시간 정보체제인 델타(Delta) 등을 개발하여 실전에서 활용하고,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받아 상대국가 드론의 활동을 재밍하는 스카이와이퍼(SkyWiper) 등을 실전에 투입²³⁾
- ◆ 이 같은 전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남부 헤르손, 남동부 자포리차, 북부 하리코프 등지에서 러시아 군의 공세를 저지함.
- ◆ 미국과 NATO 국가들은 2022년 12월부터 보다 공격적인 무기체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
 - ▶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제와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지원을 개시.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M1A1 아브람스 탱크 30대를 지원²⁴⁾

21) 『朝日新聞』 2022년 6월 2일.

22) Lara Janes, "A Testing Ground for Innovative Weapon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5, 2022.

23) Janes, "A Testing Ground for Innovative Weapons," (2022).

24) John Ismay, "Satellite-guided Bombs will Strengthen Ukraine,"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7, 2022.

- ▶ 미국의 정책과 병행하여 영국도 챌린저 탱크를, 독일은 레오파드 탱크를, 프랑스는 AMX-10 전투 차량을 지원. 이 같은 전력은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보유하던 T-72 탱크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전선 돌파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지원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 ◆ NATO 국가들의 다양한 무기 제공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보유하던 러시아제 무기 이외에 다양한 서구 국가들 무기를 운용하게 됨.
 - ▶ 방공체제의 경우, 기존 러시아제 S-300 이외에 독일로부터 지원받은 IRIS-7 방공체제에 더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제작한 SAMP/T,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게 됨
 - ▶ 전차의 경우 기존 러시아제 T-72 이외 미국이 제공한 M1A1 아브람스,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 독일 등이 제공한 레오파드 등을 운용하게 됨
 - ▶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다양한 무기체계들에 대한 운용법을 NATO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 자국 병력들에게 훈련시키기도 함
- ◆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NATO 국가들은 물론 중립국가들도 안보적 취약성에 노출되면서, 2023년 4월, 그동안 중립을 견지해 온 핀란드를 필두로 스웨덴까지 NATO 가입함.
 - ▶ 미국을 포함한 NATO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9개 여단 규모 병력을 NATO에 불러들여, 지원된 다양한 무기의 운용법에 더해 보전포(보병, 포병, 전차) 합동훈련을 제공

3. 우크라이나의 반격 시도와 공방전(2023년 6월 - 2024년 12월)

■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등 3개 방면 반격(2023년 6월 - 2024년 1월):

- ◆ 우크라이나군은 NATO 영역에서 훈련받은 9개 여단을 각각 분산 배치시키고, 2023년 6월 4일을 기해 남동부 자포리차 방면, 동부 도네츠크 방면, 북동부 바흐무트 방면에서 일제히 전선 돌파를 시도함.²⁵⁾
 - ▶ 우크라이나 돌파 부대는 미국을 포함한 NATO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M1A1 아브람스 탱크, 레오파드 탱크, 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앞세워 러시아 진지 공격 시도
 - ▶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이후 자체 제작한 UJ-22, Bober, Airborne 등 3가지 종류의 드론으로 크림리아 및 모스크바 지역을 공격하였고 수중드론도 운용²⁶⁾
 - ▶ 자포리차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돌파가 이루어지면, 크림리아 반도로 연결되는 러시아 보급로가 차단되어, 크림리아 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을 고립시키는 전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²⁷⁾

25) Andrew E. Kramer, Thomas Gibbons-Neff, Julian E. Barnes and Eric Schmitt, "Signs of Kiev's Counteroffensive Emerge," *The New York Times*, June 7, 2023.

26) Christiann Triebert, Haley Willis, Yelyzaveta Kovtun and Alexander Cardia, "Ukraine's other Counteroffensive: Drone Strikes," *The New York Times*, August 2, 2023.

- ◆ 러시아는 전선 지대에 지뢰를 부설하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포병화력, 전투기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를 저지하려 함.²⁸⁾
 - ▶ 러시아는 헬기와 드론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진격로를 파악하여 포병 화력 및 항공 우세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 및 전과확대를 저지
 - ▶ 반격 개시 후 2주간 남부 및 동부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장갑차와 레오파드 전차 등 기갑 전력이 20% 이상 전력 손실을 입음²⁹⁾
 - ▶ 2024년 9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에서 지원받은 M1A1 아브람스 전차를 전선에서 철수시킴.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전장에서 전선 돌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³⁰⁾

]그림 3] 2023년 12월의 양측 전선³¹⁾



27) Michael Schwartz, “Ukrainians prepare for Spring Surge in the South,” *The New York Times*, May 2, 2023.
 28) Andrew E. Kramer, “Kyiv probes Front Line for Russia’s Weaknesses,” *The New York Times*, June 12, 2023.
 29) Lara Jakes, Andrew E. Kramer and Eric Schmidt, “Losses push Ukrainians to Change their Tactics,” *The New York Times*, July 18, 2023.
 30) Raj M. Shah and Christopher Kirchoff, “A.I. is changing war. We are not Read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4, 2024.
 31) Belfer Russia-Ukraine War Task Force, “The Russia-Ukraine War Report Card, Dec. 12, 2023,” *Russia Matters*, December 13, 2023, <https://www.russiamatters.org/blog/russia-ukraine-war-report-card-dec-12-2023>.

- ◆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발레리 자루지니는 남부 및 동부 전선에서 진행된 총공세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함.³²⁾
- ◆ 우크라이나의 전선 돌파가 무산되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포격전 형식의 전투 수행함.
 - ▶ 푸틴 대통령이 2023년 9월, 아무르 주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러시아는 포탄 화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 이후 북한은 2023년 12월까지 컨테이너 5,000개 정도를 러시아에 전달하면서, 162밀리 곡사포 기준으로 200만 발을 상회하는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³³⁾
 - ▶ 우크라이나도 서방 각국에 155밀리 야포의 포탄과 클러스터탄 제공을 요청. 이에 부응해 유럽 각국은 100만 발 포탄 제공을 약속하면서, 노르웨이 Nammo, 독일 라인메탈, 덴마크 Krudten 등이 포탄 탄약 공장을 가동하고, 미국도 매월 5만 발 생산능력을 10만 발 수준으로 늘리면서 탄약 제공 노력³⁴⁾
 - ▶ 다만 포병 화력은 러시아가 5배 이상 우세를 보임. 2024년 1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루 2천 발 포탄 발사하는 것에 비해 러시아는 1만 발 발사³⁵⁾

■ 러시아의 재반격(2024년 1월 - 2024년 8월)

- ◆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저지한 러시아는 화력 및 항공우세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말과 2024년 1월 이후 동부 바흐무트 방면과 북동부 하르키우 방면에서 재차 반격으로 전환함.³⁶⁾
- ◆ 러시아는 12월 말, 하루에 150발의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기도 함. 이 가운데 하르키우 방면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UN 안보리 북한 제재 패널에 의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로 확인됨.³⁷⁾
- ◆ 러시아는 동부전선 도네츠크, 아브디브카 방면에서 공군 전투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반격으로 전환

32) Anastacia Galouchka, Lizzie Johnson, Kamila Hrabchuk and Isabelle Khurshudyan, "Ukraine's Top Commander calls for Mobilizing more Soldier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6, 2023.

33) 러시아-북한 정상회담은 『朝日新聞』 2023년 9월 13일 기사 참조. 신원식 국방장관 발언은 『문화일보』 2023년 12월 28일 참조.

34) Lara Jakes, "E.U.'s Lack of Arms hobbles Aid to Ukraine,"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6, 2023; Lara Jakes, "Moving to meet Europe's Demand for more Arms," *The New York Times*, January 3, 2024.

35) David E. Sanger, Julian E. Barnes and Eric Schmitt, "A New Threat in the Skies above Ukrain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4, 2024.

36) Isabelle Khurshudyan, Lizzie Johnson and Anastacia Galouchka, "Russia shatters Ukraine Holiday Season with massive Missile Barrag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9, 2023.

37) 북한은 50여 기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anger, Barnes, Schmitt, "A New Threat in the Skies above Ukraine," (2024).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방북 직전인 2024년 6월 18일,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문화일보』 2024년 6월 18일.

- ▶ 2024년 5월에는 장갑차 부대를 전면에 앞세워 전선 돌파를 시도
 - ▶ 러시아는 동부전선 바흐무트 지역 점령 이후 차시브 야르(Chasiv Yar) 지역에 공세를 집중, 공군력 이용하여 1000파운드 폭탄 수십발을 투하하기도 함³⁸⁾
 - ▶ 북부 하르키우 방면에서도 러시아 반격 지속
 - ◆ 동부전선 방어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유릴 소돌(Yuril Sodol) 장군이나 올렉산더 시르스키(Oleksandr Syrsky) 총사령관은 의회 답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포탄 탄약 부족, 병력 규모 부족, 방공망 미흡, 전력 시설 파손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고전을 치루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함.³⁹⁾
 - ◆ 러시아는 2024년 7월, 순항미사일 Kh-101과 드론 등으로 수도 키이우 및 인근 공군 기지들에 대한 공격 감행함.
 - ▶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일부 요격했으나, 공군력 열세로 도시 시설 파괴 및 인명 손실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음⁴⁰⁾
-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방면 월경 공격(2024년 8월 - 2025년 2월)
- ◆ 동부 및 남동부 방면 전투에서 고전을 강요당하던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6일, 전차부대와 1천여 명의 병력으로 북부 쿠르스크 방면으로 전선 돌파 시도함.
 - ▶ 쿠르스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대규모 전차전을 벌인 평원 지대이며, 이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11개 촌락을 장악한 데 이어 점령 지역 확대
 - ▶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내부의 니즈니노보고로드 영공으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도 감행하면서 비행기지 4곳을 파괴
 - ▶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방면에 공세를 집중하면서, 동부 지역 배치병력을 전용했기 때문에, 동부 전선의 방어망에 취약성이 노정
 - ◆ 러시아군은 2024년 10월까지 아브디브카(Avdivka) 등 돈바스 지역의 영토 700평방 킬로미터를 확보함.
- 북한군의 쿠르스크 방면 투입(2024년 10월 이후)
- ◆ 쿠르스크 방면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2024년 10월경부터 북한이 파견한 병력 1만1천여 명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함.
 - ▶ 쿠르스크와 같은 개활지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드론 등 첨단전력의 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군은 투입 초기 우크라이나에 의한 드론 공세에 많은 피해를 노정⁴¹⁾

38) 차시우야르(Chasiv Yar) 방면에서의 러시아 공세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참조. Marc Santora, "The Ukrainian Hilltop Town that is Russia's next big Target," *The New York Times*, April 27, 2024.

39) Marc Santora, "Ukraine's Vulnerabilities: Ammunition, Troops and Air Defense," *The New York Times*, April 17, 2024.

40) Kim Barker, "Russia pushes back at its Border," *The New York Times*, August 12, 2024.

41) Marc Santora and Helene Cooper, "A Pitiless Force of their Own," *The New York Times*, January 24,

- ▶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투입이 러시아측 방어진지를 확대하기 위한 ‘인해전술’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 다만 북한군이 높은 사기를 보이고 있고, 현대의 전쟁에 신속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⁴²⁾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평가

- 3년간 전개되고 있는 러-우 전쟁은 군사적으로 평가해야 할 다수의 쟁점 존재, 이하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전력상 압도적 우위를 보인 러시아에 대항하여 3년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

1. 개전 초기 정보전 및 사이버 방어 중요성

-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이버전 능력을 바탕으로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 주요 국가시설 및 군지휘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지도체제 마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큼.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과 협력하며 러시아 사이버 공격 시도를 방어함.
 - ◆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사이버전 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우크라이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통신과 전산망을 성공적으로 방어함.⁴³⁾
 - ◆ 미국은 이미 2021년 말,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요원을 파견하여, 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Hunt Forward 작전을 이미 실시, 2022년 6월, 미국 폴 나카소네 사이버 사령관은 러-우 전쟁에 임해 미국이 사이버 작전을 실시했음을 확인함.⁴⁴⁾
 - ◆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함.
 - ▶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공격 감시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
 - ▶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본부는 데이터 전송 서버를 갖고 폴란드에 파견됨, 육로로 우크라이나 데이터를 유럽에 반출하게 함
 - ▶ 일론 머스크는 4,700개 위성으로 구성된 스타링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우크라이나 정부 등의 인터넷망이 전쟁 개시 이후에도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⁴⁵⁾

2025.

42)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 우크라이나 참모본부 공보담당 세레즈노프 예비역 대령과 행한 인터뷰 참조.
“北朝鮮兵が「脅威になりうる」理由 ウクライナ軍予備役大佐の見立ては”, 『朝日新聞』 2025년 2월 15일.

43) 일본 육상자위대 동북방면 총감을 역임한 마스무라 고로(松村五郎) 장군의 초기 전황 분석 참조.
『朝日新聞』 2022년 4월 14일.

44) 『朝日新聞』 2022년 11월 20일 기사 참조.

- 개전 초기 러시아 사이버 공격 회피에 성공한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망은 이후 전쟁 장기화에 따라 러시아군의 정보 수집, 우크라이나 정부 및 각 부대와외의 지휘통제체 유지, 드론 공격 등 전쟁 수행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함.
 - ◆ 미국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지원

2. 미사일 방어체제 등 방공태세 중요성

- 개전 초기 러시아는 우세한 항공전력 및 미사일 전력을 활용하여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 시도함.
 - ◆ 수도 키이우에 개전 당일에만 100여발의 미사일 공격, Su-27 등 3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제공권 장악을 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력 타격 추진함.
 - ◆ 러시아의 공세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대 도입되었던 러시아제 S-300 미사일 방어체제가 파괴되는 손실을 겪음.⁴⁶⁾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독일, 폴란드 등으로부터 스텔어 대공미사일을 지원받고, 슬로바키아로부터는 S-300 미사일 방어체제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초기 공중 공격을 저지함.⁴⁷⁾
 - ◆ 2022년 가을부터 독일은 IRIS-T 방공체제를 지원하였고, 미국은 2023년 4월경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다 첨단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함. 노르웨이는 미국과 공동제작한 NASAM 대공방어체제를, 프랑스는 이태리와 공동제작한 SAMP/T 방공체제를 제공함.⁴⁸⁾
 - ◆ 우크라이나 군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종의 상이한 미사일 방어 및 대공방어체제 및 구소련 미사일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운용함.

45) 『朝日新聞』 2023년 1월 9일. 이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2022년 5월의 연설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번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

46) Higgins, “A Cargo to fight for Ukraine’s Sky,” (2022).

47) Caitlin Doornbos, “US European Command leads International Efforts to donate Weapons to Ukraine to fight the Russians,” *Stars and Stripes*, March 4, 2022; Steven Erlanger, “Europe Stands up to Threat from East,” *The New York Times*, March 4, 2022. 우크라이나에 S-300 을 제공한 슬로바키아에 대해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제를 대체재로 제공하였다.

48) Matthew Mpoke Bigg, “Ukraine Keeps Downing Russian Drones, but Price Tag Is High”, *The New York Times*, January 3, 2025; Helene Cooper, Michael Schwirtz and Thomas Gibbons-Neff, “Air Shield for Kyiv is described as Fragile,” *The New York Times*, April 12, 2023.

[그림 4]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미사일



우크라이나 운용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제 IRIS-T 대공 미사일

- 미국 CSIS의 미사일방어센터장 탐 카라코(Tom Karako)는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보력 및 방공체제 강화를 기반으로 러시아가 제공권을 상실하게 했다고 평가함. 영국 RUSI의 공군력 전문가 저스틴 브롱크(Justin Bronk)도 같은 평가를 내림.⁴⁹⁾

3. 재래식 전력과 첨단 전략 결합(high-low mix) 평가

-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전력은 병력규모, 전투기, 화력의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열세임.
 - ◆ 병력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 30만 명 규모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정 규군 20만 미만으로 열세
 - ◆ 공군력도 우크라이나 보유 Su-24나 Su-27 전투기들은 러시아에 비해 질적 열세였고, 수적으로도 열세
 - ◆ 포병 화력도 우크라이나는 하루 최대 2천 발 발사 수준이었음에 비해 러시아는 5배 이상 우세. 기갑 전력도 러시아 우세
- 우크라이나는 야포와 전차 등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미국 등 NATO 국가들의 군사지원에 의해 최대한 보강함.
 - ◆ 개전 초기인 2022년도에 미국은 M-777 야포와 하이마스 로켓포 지원함.
 - ▶ 슬로바키아도 Zunana 야포, 폴란드는 Krab 야포 제공

49) Santora, "The Work doesn't stop for Ukraine's Air Defenses," (2023).

- ◆ 2022년 12월 이후 미국은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등도 지원 개시함.
 - ▶ 2023년 이후에는 브래들리 전투차량, M1A1 아브람스 탱크 등도 지원
 -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레오파드 전차, 레인저 전차, AMX-10 전투차량 지원
 - ◆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 양상이 진지를 기반으로 포병 화력 위주의 소모전이 전개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포탄 소요 증대함.
 - ◆ 우크라이나의 포탄 소요가 매달 9만발에 달하게 되자, 미국은 NATO 국가들 및 한국, 이스라엘의 직, 간접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을 추진함.
 - ▶ 미국은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텍사스 등지에 155 미리 포탄 공장을 증설⁵⁰⁾
 - ▶ 한국으로부터 155미리 포탄 10만발을 제공받고, 미국 보유 동종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 ▶ 이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독일 라인메탈, 노르웨이 Nammo 등도 포탄 생산 증대⁵¹⁾
 - ◆ 이 때문에 전쟁 양상을 관찰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러-우 전쟁이 포병 소모전 (artillery-driven war of attrition)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관찰하면서, 전쟁의 성패는 포탄 공급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 이 전쟁이 서구 산업기반과 러시아 산업기반 간의 전쟁이라고 분석(contest between the Western industrial base and Russian industrial base).⁵²⁾
-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전력 이외에 자체 기술 활용 및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드론 및 드론 재밍장치를 개발, 획득하여 전쟁 수행에 적극 활용함.
- ◆ 우크라이나는 전쟁 직전 터키로부터 구입한 드론 Bayraktar TB-2 드론과 미국이 제공한 Switchblade 드론 이외에 전쟁 개시 직후부터 자체 중소 공장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드론 제작함.⁵³⁾
 - ◆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UJ-22, Bober, Airborne 등 다수 드론 제작함.
 - ◆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드론 Perun은 150미터 고도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접근하여 폭탄 투하 가능.
 - ◆ 드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원격 조정 보트를 제작하고, 리투아니아가 개발한 대드론 재밍장치 Skywiper와 같은 무기들을 NATO 지원에 의해 획득하여 운용.⁵⁴⁾

50) John Ismay, "An Arms Plant in Texas opens to Aid Ukraine," *The New York Times*, May 31, 2024.

51) Jakes, "E.U.'s lack of arms hobbles aid to Ukraine," (2023).

52) Julian E. Barnes, Helene Cooper and Eric Schmitt, "A Stalemate looms in the Second Year of the War",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3, 2022; Eric Schmitt, Adam Entous, Ronen Bergman, John Ismay and Thomas Gibbons-Neff, "Ukraine Resupplied from U.S. Arms Cache," *The New York Times*, January 19, 2023.

53) Andrew E. Kramer, "Squadrons of Plastic Aircraft hit at Russians," *The New York Times*, August 12, 2022.

54) Jakes, "A Testing Ground for Innovative Weapons," (2022).

- ◆ 러시아가 매설한 지뢰지대 개척을 위해 미국이 개발한 지뢰탐지드론 drone dog과 영국 Fenix Insight 기업이 개발한 지뢰탐지 드론도 지원받음.⁵⁵⁾
 - ◆ 드론 전력이 러시아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실제 전장에서 러시아 부대 정보 수집, 목표물 파괴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되게 되자, 우크라이나의 부수상 겸 디지털 변혁상 페도로프는 NATO 회의에서 미래 전쟁은 최대한의 드론 전쟁, 최소한의 인간 관여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⁵⁶⁾
 - ◆ 우크라이나 야전 지휘관들도 드론이 전쟁양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⁵⁷⁾
 - ◆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와 전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도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례를 관찰하면서, 미래 전쟁은 드론과 같은 자율무기체계가 지배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⁵⁸⁾
- 동일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화력에 의한 소모전 양상이라고 파악하는데 반해, 에릭 슈미트 등은 드론과 같은 자율무기체계가 적극 활용되는 미래전쟁이라고 파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 이는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통적 전쟁의 수단이었던 포병 화력과 진지전, 그리고 첨단 전쟁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등 자율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병용하면서 (high-low mix),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음.

4. 젤렌스키 정부의 전쟁지도체제와 전략 평가

-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전쟁수행에 있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전쟁지도체제의 역할이 중요함.
-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으로 군경력이 없지만, 러시아의 군사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직면하여 군통수권자로서 지난 3년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옴.
- ◆ 개전 첫날,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공군기들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마비를 목표로 폭격하고 러시아 기갑부대가 대통령궁 2마일 밖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항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국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민심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우크라이나 내 6개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합하여 전쟁상황 보도 및 정부 정책에 대한

55) Lara Jakes, "Drone Shift to Defense and Hunt for Lethal Mines," *The New York Times*, August 27, 2022.

56) Jakes, "A Testing Ground for Innovative Weapons," (2022).

57) Marc Santora, Lara Jakes, Andrew E. Kramer, Marco Hernandez and Liubov Sholudko, "A thousand Snipers in the Sky," *The New York Times*, March 6, 2025.

58) Mark A. Milley and Eric Schmidt, "America Isn't Ready for the Wars of the Futur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4).

단일한 메시지를 내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의 정적이었던 포르센코 전 대통령과 2022년 3월, 회담을 통해 서로 단합할 것에 합의하는 등 거국일치의 대러 항전태세를 구축함.⁵⁹⁾

- ◆ 군 최고지휘관인 자루지니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전쟁수행의 임무는 위임하였지만, 매일 자루지니 장군과의 전화 협의를 통해 전황을 파악하고, 전쟁지도의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수행함.⁶⁰⁾
- 또한 UN은 물론 미국, NATO, 그 밖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발한 외교를 통해, 비록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 2022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점령지역에서 러시아의 철수, 러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전범재판 실시, 전쟁 피해에 대한 러시아 보상,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 10가지 평화조건을 직접 제시함.⁶¹⁾
- 젤렌스키 대통령 중심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체제는 러시아와의 장기 진지전을 치루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러시아에게 고전을 강요하려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함.
 - ◆ 미국을 포함한 NATO 국가들로부터 M1A1 아브람스 전차, 레오파드 전차 등의 기갑전력을 지원받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2023년 6월 말을 기해 기갑전력을 앞세워 러시아와 대치 중이던 남부, 동부 전선 방면으로 일제히 반격을 감행함.
 - ▶ 이 반격은 러시아측이 부설한 지뢰지대 등 방어망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의 과감한 전략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음
 - ◆ 또한 러시아와 남부 및 동부전선에서의 진지전 양상이 장기간 지속되자,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는 2024년 8월6일을 기해 북부 전선 쿠르스크 방면에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과감한 공세작전으로 전환함.
 - ▶ 이 공격도 화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방어와 북한군의 투입으로 인해 전선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방어 취약점을 찾아 전세를 전환하려 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지도부는 외교측면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비판적인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군사적으로 전선 지역 러시아의 방어취약부분을 공략하려는 기민한 대응을 보여줌.

59) Kramer, "Unified against a Common Enemy," (2022).

60)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루지니 사령관에게 현장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재량권을 부여. 이 점은 현장 지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이나 쇼이구 국방장관 등이 지휘권을 행사했던 러시아와 대비됨,

61) 2023년 9월 20일에는 UN 총회에 참석하여 같은 조건을 일관되게 제안. 2024년 6월 2일, 젤렌스키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상그리라 대화에도 직접 참석하여 자신들의 평화 조건을 설명하기도 함.

5. 전쟁지속 능력: 병참지원 및 국제적 우방 확보

- 장기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지속 능력, 즉 예비전력 등 병력 확보, 병참지원, 전력과 석유 등 전략물자의 비축과 공급, 그 외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급망의 유지가 불가결.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료가 제한되긴 하지만, 병력 자원의 확보, 탄약과 드론 등 전쟁물자의 지속 공급, 전력과 석유 등 전략물자의 확보 등에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에 임하는 것으로 보임.
-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의 정규병력은 19만, 예비병력은 90만명 규모. 우크라이나보다 현역 및 예비역 병력 규모가 우세했던 러시아도 전쟁 과정 중 2022년 4월에는 13만명 규모, 2022년 9월에는 30만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동원하고, 바그너 그룹 등 사설군사단체 병력을 지원받았음. 우크라이나도 전쟁 장기화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 병력의 추가 확보에 고심했을 것으로 보임.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지휘관 유릴 소돌(Yuri Sodol) 장군은 전선 방어를 위한 병력 부족을 호소한 바 있음.⁶³⁾
-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소요되는 포탄, 드론 등의 무기 생산과 공급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함. 155미리 포탄 제조와 공급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과 NATO 국가들의 방산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며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지속함.
 - ◆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업,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동되면서 필요 무기들을 공급하려고 노력. 드론 제조업체 Vyriy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했고, Saker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찰드론이나 가미카제 드론 등을 생산하여 우크라이나 군에 공급.⁶⁴⁾
-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과 석유, 철강 등의 전략물자가 전쟁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는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남부 우크라이나, 자포리차 등 4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15개 원자로에 의존.
 - ◆ 전쟁 개시되면서 러시아는 공군기와 미사일 전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제철소와 전력망,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타격.⁶⁵⁾
 - ◆ 특히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차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지상병력을 투입해 2022년 3월 4일 점령. 이로 인해 원자로 6기가 러시아에 의해 장악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자원 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함.

62) 2023년 6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남부 및 동부 전선에서 실시한 반격작전에 수개 대대 규모의 예비전력이 투입됨. Eric Schmitt, Matthew Mpoke Bigg and Carlotta Gall, "Ukraine sends thousands of Reserve Troops into Assault," *The New York Times*, July 28, 2023.

63) 그에 의하면 100미터 전선방어에 최소 8-10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병력 자원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함. Santora, "Ukraine's Vulnerabilities: Ammunition, Troops and Air Defense," (2024).

64) Paul Mozur and Adam Satariano, "Killer Robots on the Battlefield," *The New York Times*, July 8, 2024.

65) Marc Santora, "Missile Strike Highlights Risk of Nuclear Disast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22.

- ◆ 개전 초기 러시아는 아조프스탈제철소가 위치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에 대해서도 지상군을 투입. 제철소내 우크라이나군의 80일 간에 걸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결국 마리우폴 지역도 러시아에 의해 장악됨.⁶⁶⁾
 - ◆ 2023년 6월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통해 자포리차와 마리우폴 방면 탈환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전력 및 철강 자원 같은 전략자원 확보의 제약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NATO 국가들의 지속적인 전쟁물자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전쟁 수행은 불가능했을 것.⁶⁷⁾

4. 러-우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 3년 간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지역은 물론 글로벌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하에서는 미국 주도 NATO 동맹체제의 강화, UN 등 국제기구 및 규범의 약화, 국제핵질서의 동요 등으로 나누어 이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

1. 미국 주도 NATO 동맹 체제의 강화

- 미국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해 러시아의 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하에 NATO 동맹국가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함.
- ◆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NATO 국가들과도 협력해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 ◆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항공기 부품 등 대러 핵심기술 수출 규제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동참시킴.⁶⁸⁾

66) Michael Schwartz, "Last Stand at the Steelworks", *The New York Times*, July 28, 2022.

67) 2023년 2월, G7 정상회의의 시점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미국이 478억 유로, 영국 71억 유로, 독일 54억 유로, 캐나다 38억 유로, 프랑스 14억 유로, 이탈리아 7억 유로, 일본 6억 유로 등이었음. 『朝日新聞』 2023년 2월 19일.

68) Ana Swanson, "U.S. casting Global Net to cut off Goods for Russia," *The New York Times*, March 18, 2022.

- 유럽내 NATO 회원들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적극 동참하면서 멤버십을 확대하고, 자체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안보정책을 추진.
 - ◆ 전쟁 발발 직후 종전까지 중립국의 위상을 견지해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 4월을 기해 각각 NATO 가입을 요청해옴. 스웨덴의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 등의 유보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국의 NATO 가입이 실현됨.⁶⁹⁾
 - ◆ NATO는 신규 회원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각각 참가한 가운데 2022년 5월에는 Hedgehog, 2024년 1월의 “Steadfast Defender 2024”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결속을 과시.⁷⁰⁾
 - ◆ NATO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가 개전 직후인 2022년 2월 27일, ‘시대전환(Zeitenwende)’을 표방하며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발표.⁷¹⁾ 영국도 스나크 수상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발표.⁷²⁾
 - ◆ NATO 국가들은 각국마다 상이한 주요 무기체계의 표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공동 무기개발도 추진. 2024년 4월,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의 신형 전차 공동 개발에 합의하였고, 나아가 독일은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방어체제 European Sky Shield 구상도 제안.⁷³⁾
- NATO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안보협력 관계 강화도 추진.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개최 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확산,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NATO와 협력 각서를 체결.⁷⁴⁾

2. UN 등 국제기구의 규범력 약화

- 러시아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 간의 무력분쟁을 규제하거나, 분쟁 발생시에 그 침략성을 판단하는 책무를 가진 국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직접 전쟁 도발의 당사자가 됨으로 UN 안보리의 기능이나 역할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

69) Steven Erlanger and Johanna Lemola, “Swedes and Finns could shed Neutrality,” *The New York Times*, April 15, 2022; Roger Cohen, “In Rebirth of NATO, Nations unite in Face of War,” *The New York Times*, May 17, 2022.

70) Hedgehog 훈련에 대해서는 Marc Santora, Anton Troianovski, Rick Gladstone and Matthew Mpoke Bigg, “A Faltering Invasion, and a growing NATO,” *The New York Times*, May 18, 2022. Steadfast Defender 훈련에 대해서는 “NATO War Games a repeat of Cold War Confrontation,” *Global Times*, January 26, 2024, 참조.

71) Roger Cohen, “In Europe, Conflict has shattered Illusion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8, 2023.

72) 2024년 7월 현재 NATO 회원국들의 1/3이 GDP 대비 2%의 국방예산 수준에 미달되고 있음. Steven Erlanger, “How Europe can Defend Itself,” *The New York Times*, July 16, 2024.

73) Patricia Cohen and Liz Alderman, “Europe hits Hurdles in improving its Defenses,” *The New York Times*, May 27, 2024.

74) 『중앙일보』 2023년 7월 11일 기사 참조.

- ◆ UN 안보리가 기능을 못하자, 2022년 3월 2일, UN은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개최하여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참가국 141개국의 지지를 받아 가결시킴⁷⁵⁾
 - ◆ 전쟁이 지속되는 한 UN 안보리는 러시아의 전쟁 주도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포괄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이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에 합의
- ◆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이러한 상호지원조약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그간 UN 안보리가 채택해온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97호(2017년) 등과 상충될 수 있음. 예컨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달러화와 물품의 대북 유입 규제와 주요 인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찬성한 이 결의안에 비추어 볼 때, 러-북 상호지원조약은 그 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해, UN 안보리의 권한 및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국제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3. 국제 핵군비통제질서의 동요

-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기 이래 수차례의 핵군비통제협정을 통해 쌍방이 보유하는 핵전력의 규모를 축소하고, 여타 핵보유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해옴
- ◆ 2010년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체결한 New START 협정은 쌍방이 보유하는 전략핵 탄두 규모를 상호 1,550발로 제한함. 또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1996년 UN총회를 통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를 체결하여, 지상은 물론 우주와 해저에서의 핵실험을 규제하도록 하는데 합의.
-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합의한 기존 핵정책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임.
- ◆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자 2022년 10월, 러시아 내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추정됨.⁷⁶⁾ 2023년 3월에는 러시아의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재배치.
 - ◆ 2023년 2월, 푸틴 대통령은 CTBT 조약의 이행정지를 표명하고, 2023년 11월, 하원의 CTBT 비준 철회 법안 가결을 거쳐 푸틴은 비준 철회에 서명함.⁷⁷⁾

75) 『朝日新聞』 2022년 3월 4일. 이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들은 러시아, 벨라루시, 북한, 에리트리아, 시리아 5개국.

76) Sanger and Broad, "There are risks for Putin if he uses Nuclear Weapons," (2022).

77) 『朝日新聞』 2023년 10월 19일과 11월 4일 기사 각각 참조.

- ◆ 푸틴 대통령은 2023년 2월에 행한 연설을 통해 전략핵탄두의 양적 제한을 규정한 New START 조약의 갱신 연한인 2026년에 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표명, 이 경우 러시아는 전략핵탄두 생산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됨.⁷⁸⁾
- ◆ 2024년 9월 26일, 푸틴 대통령은 기존의 러시아 핵교리를 변경하여, 러시아 주권에 위협을 가하는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시킴.⁷⁹⁾ 이같은 핵교리 개정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핵국가에 러시아에 대해 재래식 공격을 가할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함.
 - ◆ 우크라이나 내 수백개소에 방사능 탐지시설을 설치하여, 러시아의 핵 사용 징후를 식별 하도록 함.
 - ◆ 우크라이나 내 200여개 병원을 핵피해 대응 병원으로 지정하고,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사능 노출에 대응한 치료법을 훈련하게 함.⁸⁰⁾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러시아가 주요 비핵 규범 및 조약에서 이탈을 표방하고,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교리를 개정함으로써, 탈냉전기 이래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에 의해 구축된 국제핵질서가 크게 동요되는 양상을 보임.⁸¹⁾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던지는 교훈

- 러-우 전쟁은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유럽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나, 현재까지 핵 무기를 제외하고 21세기에 가용한 재래식 및 첨단 무기체계들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북한 군이 참전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참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음.
- 개전 전후 시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감행한 사이버전이나 주요 지역 및 시설들에 대해 가한 전투기 및 미사일 공격 등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국지적 혹은 전면적 공격을 시도할 경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78) David E. Sanger, "Putin's Shift may Signal the End of Nuclear Arms Control,"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3, 2023.

79) Lawrence Freedman, "Would Putin use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October 5, 2024.

80) W. J. Hennigan, "How we Returned to the Brink," *The New York Times*, March 12, 2024.

81) 박영준,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한반도 안보," 이창위 외, 『기रो에 선 북핵 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 (서울: 박영사, 2025), 참조.

- ◆ 이에 대비하는 감시정찰 능력의 확보, 사이버 방어 및 공격 수단의 확보,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과 운용이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 필요.
 - ◆ 이미 구축된 M-SAM과 L-SAM, 패트리엇와 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 등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통해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드론 등 자율무기체계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래식 전력의 결합도 병행하여, 하이로믹스(high-low mix)의 전력증강 및 운용을 발전시킬 필요.
 - ◆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향후 드론 개발 및 운용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공격수단으로서의 드론 등 자율무기체계를 갖추어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리투아니아 등과 개발한 드론재밍장치의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주요 무기체계의 생산 및 공급, 전력 및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의 비축과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호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전쟁 상황에서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도록 평시에 동맹국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의 우방국가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
- 북한의 전술핵 및 전략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간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하에 구축하려 했듯이 방사능 탐지 및 핵 방호태세와 관련 의료체계를 평시부터 점검할 필요.
-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 특히 UN 안보리의 기능 약화와 NPT 체제의 동요를 국가안보적인 이슈로 파악하고,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를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 어떤 형태로든 러-우 전쟁의 종전도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에 나타난 양국의 전쟁수행방식, 드론 등 새로운 전력 체계, 우방국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쟁 지속 능력 중요성 등은 한국의 미래 안보를 위해서도 숙고될 필요가 있음.



저자 소개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일본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이후 국방대학교 교수에 임용되어 국가안보론, 일본군사론, 동북아 국제관계,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해 왔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Program on US-Japan Relations의 방문학자로서 미일동맹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했다. 박사논문을 번역한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2014)을 포함해 『제3의 일본』 (2008),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 (2017),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2021) 등의 단독 저서와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매일경제, 중앙선데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에 국제안보관련 칼럼을 집필해 왔으며,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 외교부,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 통일부의 통일미래기획위원,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획 및 감수: 박동준(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